

게으른 손은 가난을 초래

하지만 부지런한 손은 부요하게 만듭니다. 잠언 10:4 – Ted Hildebrandt와 Chat gpt 의 속담 이야기

엘름스워스 마을에는 토마스와 엘리라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랐지만, 그들의 삶은 그보다 더 다를 수는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마을 전체에 근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땅을 정성껏 갈고 가축을 인내심 있게 돌보았습니다. 밭은 푸르고 곡식 창고는 가득했으며,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반면 엘리는 변명에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 앉아 류트를 연주하며 인생은 수고하기엔 너무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의 이른 아침과 굳은살 박힌 손을 비웃으며 자기 밭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빈둥거리며 한가로운 삶을 택했습니다. "땅이 자연적으로 자양분을 제공하는데 왜 뼈 빠지게 일해야 하지? 우리가 일하든 안 하든 해는 뜨고 지는 법이지." 엘리는 포도주와 꿀을 사기 위해 땅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재산을 누리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선선한 가을 아침, 토마스는 엘리에게 수확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밀이 익었고 비가 올 거야." 토마스가 재촉했다. "도와주면 날씨가 변하기 전에 수확을 끝낼 수 있을 거야." 엘리는 나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걱정이 너무 많구나, 형님. 햇볕에 말리고 바람에 키질하게 내버려 두세요. 내일은 제가 도울게요."

내일이 왔다가 갔고, 폭풍도 지나갔다. 계곡에는 바람이 울부짖으며 비가 쏟아져 밀밭을 뒤덮었다. 토마스는 할 수 있는 만큼은 건져냈지만, 엘리의 방치된 농작물은 망가졌다. 그는 폭풍 후 밖으로 나가 질척거리는 땅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다.

겨울이 되자 토마스는 봄까지 먹을 만큼의 곡식을 저장해 두었고, 마을 시장에 남은 곡식을 팔기까지 했다. 그러나 엘리는 찬장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기가 그림자처럼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토마스의 집으로 향했다. 토마스는 뭔가 아는 듯한 눈빛으로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형님." 그는 빵과 수프를 나눠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엘리는 불 옆에서 손을 녹이며 고백했다. "여기서 하루, 저기서 하루...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엘리는 고백했다. "형님, 제 뭇의 발을 낭비했군요."

토마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그는 불꽃을 바라보며 물었다. "'게으른 손은 가난을 초래하지만,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엘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 속담이 종소리처럼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봄이 오자 엘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토마스와 함께 일찍 일어나 삽과 괭이를 들고 밭에 나갔고, 말보다는 귀 기울여 들었다. 근육은 빠근하고 하루는 길게 느껴졌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무언가가 뿌리내렸다. 바로 자부심과 목적의식이었다.

다음 수확 무렵, 엘리의 밭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 손으로 뿌린 것을 거두었고, 처음으로 그의 헛간은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를 정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쌍의 남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름스워스 의 아이들이 집안일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의무를 게을리 할 때마다, 부모들은 미소를 지으며 토마스 와 엘리, 그리고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계으른 손은 가난을 가져오지만,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만든다."*